(財)東亞文化硏究院 地表調査報告 第10輯

창녕 우포늪 생태공원 조성사업부지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2004. 8

(財)東亞文化硏究院
Foundation of East Asia Cultural Institute

目　　次

Ⅰ. 조사개요.....7

Ⅱ. 창녕군의 자연환경과 역사.....8
1. 창녕군의 자연환경.....8
2. 창녕군의 역사적 환경.....9
3. 조사대상지역 개관.....15

Ⅲ. 조사내용.....18
1. 고고·역사학적 조사.....18
2. 고생물학적 조사.....19

Ⅳ. 조사단 의견.....21

참고문헌.....23

圖 版.....25

圖 面 目 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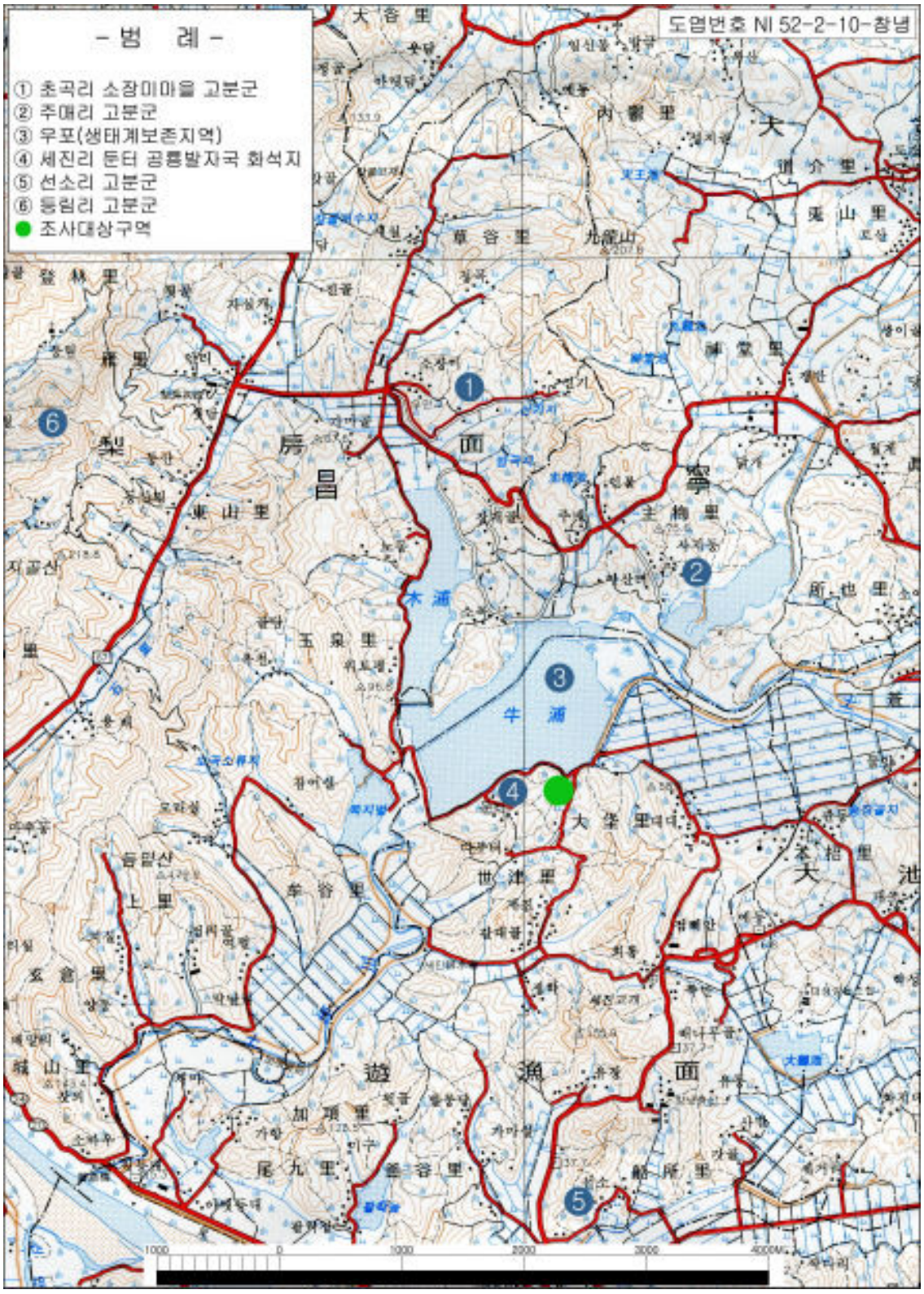
도면 1. 조사대상구역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 (1/50,000)·····5
도면 2. 조사대상구역 지형도 1 (1/5,000)·····6

圖 版 目 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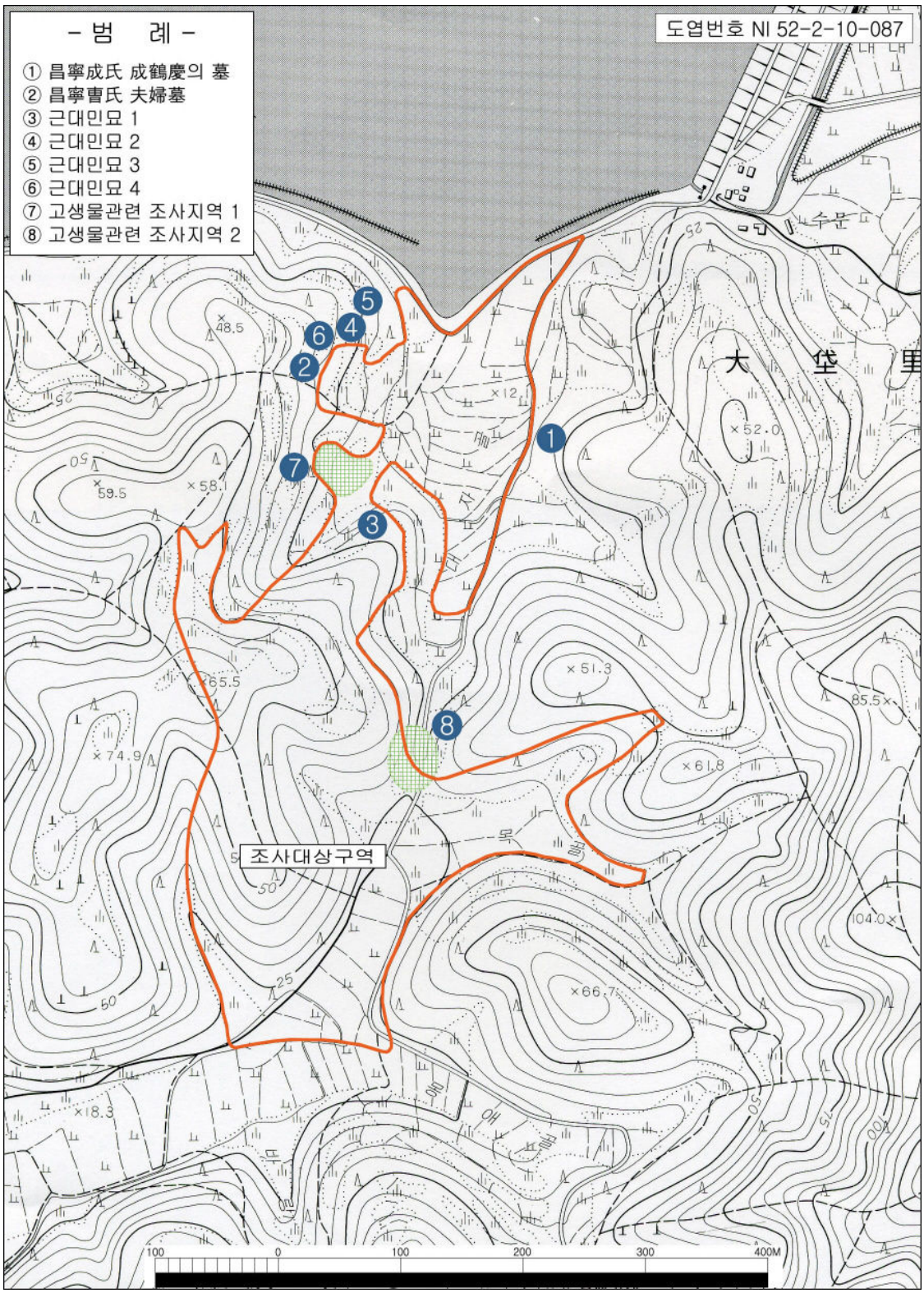
도판 1. 조사지역 원경(북→남)·····27
도판 2. 조사지역 전경(북→남)·····27
도판 3. 조사지역 부분전경(동쪽지역, 서→동)·····28
도판 4. 조사지역 부분전경(서쪽지역, 동→서)·····28
도판 5. 조사지역 부분전경(남쪽지역, 북→남)·····29
도판 6. 조사지역 부분전경(북쪽지역, 남→북)·····29
도판 7. 조사지역 부분전경(주차장지역, 남→북)·····30
도판 8. 조사지역 부분전경(주차장지역, 서→동)·····30
도판 9. 昌寧成氏 成鶴慶의 墓 전경(서→동)·····31
도판 10. 昌寧曺氏 夫婦墓 전경(남→북)·····31
도판 11. 근대민묘 1 전경(동→서)·····32
도판 12. 근대민묘 2 전경(남→북)·····32
도판 13. 근대민묘 3 전경(동→서)·····33
도판 14. 근대민묘 4 전경(동→서)·····33
도판 15. 고생물학적 조사지역 1 전경·····34
도판 16. 고생물학적 조사지역 2 전경·····34

表 目 次

표 1. 창녕군 연표·····12
표 2. 창녕군 지역의 흔적화석 예·····20



도면 1. 조사대상구역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



도면 2. 조사대상구역 지형도

Ⅰ. 조사개요

우리연구원은 (주)삼안기술공사로부터 조사 의뢰를 받은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대대리 일원의 우포늪 생태공원 조성사업(창녕군에서 시행) 부지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동법 시행령 제43조의3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계획수립시 사업구간내 지표조사를 통해 문화유적 분포여부를 조사하여 확인된 유적에 대한 보존 방향을 수립하기 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현장조사는 창녕군 유어면 대대리 일원의 우포늪 생태공원 조성사업 부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현장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조사대상지역과 그 주변일대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조사는 고문헌조사 및 기보고된 각종 발굴조사 보고서와 학술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현장조사는 전구간을 도보로 실시하여 유적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또한 고생물학적·지질학적인 조사는 진주교육대학교의 서승조교수가 조사단과 동행하여 실시하였다.

지표조사를 위한 조사단의 구성과 조사지역은 아래와 같다.

■ 조사단 구성

조 사 단 장 : 신용민(동아문화연구원 고고역사조사단장)
책임조사원 : 임동재(동아문화연구원 조사과장)
보 조 원 : 심종훈(동아문화연구원 연구보조원)

■ 총조사기간 : 2004년 6월 14일~2004년 8월 13일(실조사일수 20일)

예비조사 : 착수일로부터 5일
현장조사 : 착수일로부터 8일
자료분석·정리·보고서 작성 : 7일

■ 조사지역 :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대대리 일원

■ 과 업 량 : 106,200㎡

Ⅱ. 창녕군의 자연환경과 역사

1. 창녕군의 자연환경

창녕군은 경상남도 북부 중앙에 위치하며, 전체적인 地勢는 동부에서 서남쪽으로 열린 형태이다. 동단은 부곡면 학포리(128°39′)이고, 서단은 이방면 현창리(128°21′)이며, 남단은 부곡면 학포리(35°22′), 그리고 북단은 성산면 대산리(35°40′)이다.

창녕군의 동쪽은 密陽市의 무안면과 초동면, 청도면 등과 접하며 북쪽은 경상북도 淸道郡의 풍각면, 대구광역시 달성구의 유가면, 구지면 등과 접하고, 서북쪽은 낙동강을 경계로 陜川郡의 덕곡면・청덕면, 宜寧郡의 낙서면・부림면・유곡면・지정면 등과 접하고 있고, 남으로는 남강과 낙동강을 끼고 咸安郡의 대산면・칠서면・칠북면과 昌原市의 북면・동면 등과 마주하고 있다. 거리는 동서가 약 20㎞이며, 남북이 약 27㎞이다.[1] 창녕군의 전체 면적은 533.09㎢로 경상남도 총 면적의 약 5.1%를 차지한다.

북동부는 天王山(619m), 妙峰山(513m), 秀峰山(593m) 등이 경상북도와 경계를 이루며 솟아 있고, 靈鷲山(737m)과 烈王山(663m)이 동쪽 밀양시와 경계를 이룬다. 동부지역에 위치한 火王山(757m)은 군내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창녕의 鎭山이며, 靈鷲山(일명 靈蹴山)은 영산면의 鎭山이었다. 또한 북서부 및 서부에는 九龍山(208m), 九陳山(300m), 高雲峰(241m) 등 높이 200m 내외의 구릉성 산지가 분포하고 있다. 경상도의 젖줄인 낙동강이 창녕군의 서쪽과 남쪽을 흐르면서 陜川郡, 宜寧郡, 咸安郡 등과 경계를 이루며, 梨房面과 南旨邑에서 黃江과 南江이 각각 합류한다. 그 이외에도 桂城川, 淸道川, 溫井川, 吉谷川 등 북동부 산지에서 발원한 소하천들도 낙동강으로 유입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창녕군의 지형은 동쪽이 높고 서남쪽은 낮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또한 크고 작은 구릉이 간간이 기복하여 있다. 평야는 그다지 넓지 않으나 낙동강을 따라 작은 평야를 형성하고 있다.

창녕군의 地質構成을 살펴보면 창녕군 지역 대부분이 慶尙盆地에 속하는데, 실제로 경상남도 대부분이 경상분지에 속하며 지질적인 특성은 북쪽의 경북지방과 거의 동일하다. 경상남도는 서북부의 소백산맥과 그 연변의 산지는 嶺南陵塊에 속한 선캄브리아기의 각종 變成巖으로 이루어졌고, 그 동쪽에는 중생대 白堊紀에 퇴적된 慶尙累層群이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대체로 구마

1) 昌寧郡誌編纂委員會,『昌寧郡誌』, 昌寧郡誌編纂委員會, 2003.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그 서쪽에는 경상누층군의 최하층인 新洞層群과 이의 상부층인 河陽層群이 연속적으로 펼쳐진다. 그리고 그 동쪽과 남해의 여러 섬에는 경상누층군의 최하부층인 楡川層群이 분포하는데 백악기 말의 佛國寺花崗巖과 그 밖의 火成巖類가 이곳 저곳에서 貫入한 상태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창녕군일대는 퇴적암층 가운데 하양층군이 널리 발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창녕군을 관통하고 있는 낙동강의 배후와 소지류의 하곡은 침식을 받아 깊은 계곡을 따라 넓은 背後濕地가 형성되어 늪과 못이 많다. 이는 氷河期에 本流 및 支流의 河谷이 침식을 받아 깊은 골짜기가 형성되었고, 그 후 해수면 상승과 더불어 본류에서의 운반퇴적물이 지류에 비해 많아 범람시 지류의 입구가 먼저 막혀 자연제방이 형성되어 있으며, 남지읍에는 避水臺 기능을 하는 제방이 축조되어 있다.

기상과 기온을 살펴 보면, 창녕군 지역은 연평균기온이 13.1℃내외로 비교적 온난하지만 8월 평균기온 26.3℃ 내외, 1월 평균기온 -1.3℃ 내외로 기온의 연교차는 비교적 큰 편에 속한다. 이는 내륙에 위치한 창녕군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야기된 것으로 한서의 차가 심한 편이다. 연평균 강수량은 1,053㎜로 경상남도의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적은 편이며, 2002년 1일 최대 강우량은 188㎜(8월 31일)였으며, 2002년 총강우량은 1,544㎜였다. 대체적으로 3・4・5월과 10・11월이 맑은 날이 많은 달로 나타나 있고, 눈이 오는 날은 극히 드물다.

2. 창녕군의 역사적 환경

지금의 창녕군은 옛 昌寧縣과 靈山縣이 합하여 이루어진 곳이다.[2] 창녕의 別稱으로 昌山・昌城・夏城・夏山[3]이 있고, 영산의 별칭으로는 西火・尙藥・鷲山・鷲城[4] 등이 있다.

최근 우리연구원에 의해 비봉지역에서 세선융기문토기가 출토되는 신석기시대 문화층이 확인되어 신석기시대부터 낙동강을 통한 생활터전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창녕지역에서 발견되는 지석묘[5]는 이 지역 곳곳에

2)『嶠南誌』卷之七十六 靈山郡
沿革 本新羅西火縣 景德王改尙藥 爲密陽郡領縣 高麗改今名 仍屬 元宗置監務 李朝改爲縣監 (屬縣) 桂城縣 在郡北十五里 高麗顯宗時 屬密城 恭愍王時來屬 恭讓王時還屬密城 李太祖三年復來屬 高宗建陽元年改爲郡 大正三年割射村里移屬咸安郡 而合於昌寧郡

3)『高麗史』卷第五十七 志第十一,『新增東國輿地勝覽』卷二十七 昌寧縣,『慶尙道邑誌』昌寧縣邑誌『嶺南邑誌』第十五冊 昌寧 附事例

4)『輿地圖書』慶尙道,『靈山縣邑誌』

산재하기 때문에 청동기시대에는 보다 광범위하게 생활터전을 확장해 나갔음을 인식할 수 있겠다.

고대 창녕지역의 실상을 알려주는 문헌자료는 거의 없으며, 가야연맹에 속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당시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예전의 駕洛國, 阿羅伽倻, 大伽倻[6] 등 가야연맹권과 강(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어, 그 문화권에 속하였든지 또는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창녕지역은 3세기 중반경의 우리나라 남부 지역 정치세력의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三國志』魏志 東夷傳에서 弁辰韓 24國 가운데 하나인 不斯國에 비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야권이었던 창녕이 언제 신라에 편입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三國史記』新羅本紀에 의하면, "眞興王 16년(555) 正月에 比斯伐에 完山州를 두었다."라고 하였고[7], 雜志 地理 火王郡條에는 "州를 설치하고 이름을 下州라고 하였다"고 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이미 신라권에 가까운 나라로 존속했거나 이미 신라권에 들어갔을 것으로 보인다.[8] 왜냐하면 비자화군과 서화현이라 불리는 시기가 언제였는지 알 수 없으나 진흥왕대에 이미 하주의 치소를 두면서 비자화군(비사벌)에 두었다고 한 것은 가야의 여러 나라가 멸망하기 이전에 신라에 편입되어, 신라의 지명으로 불려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라의 삼국통일 후 757년(景德王 16)에 창녕지역은 火王郡으로 개칭되고 玄驍縣(玄風), 幽山縣(靑道郡 豊角面), 桂城縣(昌寧郡 桂城面)을 領縣으로 관할했으며, 靈山은 常藥縣으로 개칭되어 密城郡(密陽)의 영현이 되었다.[9]

---

5) 창녕군 내에는 靈山面 竹絲里, 新堤里, 昌寧邑 幽里, 釜谷面 靑巖里, 都泉面 都泉里 등지에 지석묘군이 분포하고 있다.

6) 가락국은 금관가야 지역으로 오늘날의 김해시 지역을, 아라가야는 지금의 함안, 대가야는 지금의 경상북도 고령을 지칭한다.

7)『三國史記』新羅本紀
……十六年 春正月 置完山州於比斯伐……

8)『三國史記』卷三十四 地理一 火王郡條
火王郡本比自火郡 一云比斯伐 眞興王十六年 置州 名下州 二十六年州廢 景德王改名 今昌寧郡領縣一 玄驍縣 本推良火縣 一云三良火 景德王改名 今玄豊縣
그리고 창녕고분군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교동고분군은 5세기 전반에서 후반에 걸쳐 축조되었으며 피장자는 창녕지방 토착세력 중에서 우두머리에 해당되면서 신라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자로 판단되어 최소한 5세기대에 들어와서는 창녕이 신라문화권 내지는 신라영역권 내에 포함되어 활동한 것으로 보여 위의 기록과 상통하고 있다. (심봉근 외,『창녕교동고분군』고적조사보고 제21책, 동아대학교박물관, 1992.)

9)『高麗史』卷第五十七 志第十一
昌寧郡 本新羅比自火郡 一云比斯伐 眞興王十六年置下州 二十六年廢 景德王 改爲火王郡 太祖二十三年更今名 顯宗九年來屬 明宗二年置監務 別號 昌城 夏城
『高麗史』地理志 卷十一 地理二
靈山縣 本新羅 西火縣 景德王改名 尙藥 爲密城郡領縣 高麗更今名 仍屬 忠烈王十五年置監務 有溫泉

고려초인 940년(太祖 23)에 화왕군이 창녕군으로, 현효현이 현풍현으로 각각 개칭되었으며, 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상약현은 영산현으로 고쳐져 밀성군의 속현으로 되었고, 같은 해에 지금의 계성면 지역인 계성현도 밀성군의 속현이 되었다. 그 뒤 1172년(明宗 2)에 창녕군, 1274년(元宗 15)에 영산현에 監務가 설치되었으며, 1366년(공민왕 15)에는 계성현이 영산현에 합쳐졌다가 1390년(恭讓王 2)에 다시 밀성군으로 이속되었다.[10] 한편, 고려말에 왜구가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영산현을 침구하니 그 피해가 막심하였으며, 공민왕 때 정권을 잡고 개혁을 실시하려다 실패한 辛旽은 바로 이 지역의 玉泉寺 출신 승려였다.

조선초의 군현제 개편으로 1394년(太祖 3) 계성현이 다시 영산현에 합쳐졌으며, 1414년(太宗 14)에는 창녕현으로 강등되면서 監務를 縣監으로 고치는 규례에 따라 창녕현과 영산현에 현감이 파견되었다.『世宗實錄』지리지에 의하면 당시의 호수는 창녕현 825호 4,352명, 영산현 257호 1,134명, 계성현 214호 972명이었다. 1592년(宣祖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郭再祐가 이끄는 의병들이 남강과 낙동강의 왜군 수송로를 공격하는 등 많은 전공을 세웠고, 그해 8월에는 의병장 成天禧가 창녕을 탈환하였다. 정유재란 때에도 이 지방의 의병들이 산성을 수축하고 화왕산성에서 왜군을 크게 무찔렀다. 1631년(인조 9) 成至道의 역모사건으로 창녕현이 폐현되어 영산현에 합쳐졌다가, 1637년 다시 복구되었다.『輿地圖書』의 기록에 의하면 1759년(영조 5)의 戶口數는 창녕현 6,192호 28,163명, 영산현 4,264호 19,848명이었다.

1895년(高宗 32) 지방관제 개정에 따라 대구부에 속하고 창녕현과 영산현이 모두 군으로 개편되었으며, 1896년에 경상남도 창녕군・영산군이 되었다. 1914년 군면 폐합 때 영산군이 폐지되고 영산군 釜谷面・吉谷面・都泉面・桂城面은 그대로, 邑內面이 영산면으로, 丈加面・麻姑面이 丈麻面으로 통합되어 창녕군에 편입됨으로써 면적이 크게 넓어졌다. 1919년 3·1운동 때에는 영산에서 具中會 등 24명이 결사대를 조직하여 창녕군내의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1956년 영산 면민들이 남산에 3·1 독립운동기념비를 세우고 매년 삼일민속문화제를 개최해 오고 있다. 1922년에는 일본 육군이 대합면 일대를 군용지로 징발하여 군사시설을 설치하였다.

又有伽倻津溟所

10)『世宗實錄地理志』慶尙道 慶州府 靈山縣
本西火縣 景德王改名 尙藥 爲密城郡領縣 高麗改今名 屬密城 任內 忠敬王十五年甲戌(元世祖至元十一年)時置監務 屬縣一 桂城 羅代稱號 未詳 顯宗戊午 屬密城 任內 恭愍王 丙午 移屬靈山 恭讓王 庚午還屬密城 本朝 太祖甲戌 復屬于縣 鎭山靈鷲……
『新增東國輿地勝覽』卷二十七 昌寧縣
景德王改火王郡 高麗太祖改今名 顯宗屬密城郡 明宗置監務 本朝例改縣監

【표1】 창녕군 연표

시대	연대	주 요 사 항
고대	555	신라 진흥왕 16년, 신라에 병합되어 하주가 설치됨.
	561	신라 진흥왕 22년, 진흥왕척경비 건립.
	565	신라 진흥왕 26년, 비사벌군 또는 비자화군으로 개칭.
	757	신라 경덕왕 16년, 화왕군으로 개칭하고 서화현은 상약현으로 개칭.
고려	940	태조 23년, 화왕군을 창녕군으로 개칭, 상약현을 영산현으로 개칭.
	1018	현종 9년, 창녕군과 계성현이 밀성군의 속현이 됨.
	1172	명종 2년, 창녕군에 감무 파견.
	1274	원종 15년, 영산현에 감무 파견.
	1366	공민왕 15년, 계성현이 영산현에 합쳐짐.
	1390	공양왕 2년, 계성현이 다시 밀성군에 이속됨.
조선	1394	태조 3년, 계성현이 영산현에 합쳐짐.
	1414	태종 14년, 창녕군이 창녕현으로 강등되고, 창녕현과 영산현에 현감을 파견함.
	1592	선조 25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곽재우・성천희 등이 의병을 일으킴.
	1631	인조 9년, 창녕현이 영산현에 합쳐짐.
	1637	인조 15년, 창녕현이 복구됨.
근대	1895	고종 32년, 대구부 창녕군・영산군으로 개편.
	1896	경상남도 창녕군・영산군으로 개편.
	1914	영산군이 창녕군에 편입.
	1919	구중회 등 24명이 3·1운동을 주도함.
현대	1931	남곡면을 남지면으로 개명.
	1950	6·25사변 때, 치열한 공방전으로 초토화.
	1955	창락면이 창녕면에 편입되어 14개 면으로 개편.
	1960	창녕면이 읍으로 승격.
	1963	남지면이 읍으로 승격.
	1971	창녕군조례 제175호로 남지읍 고곡출장소를 설치함으로써 2읍 12면 1출장소로 개편.
	1973	부곡면 유황온천 개발.
	1976	창녕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 시행.
	1977	구마고속도로 개통.
	1998	행정조직 개편으로 고곡출장소가 폐지되었고, 현재 139개 법정리에 286개의 행정리로 개편.

1950년 6·25동란 때 이 지역은 낙동강 교두보의 마지막 저지선으로 치열한 공방전을 한 달 동안 계속하여 공산군의 침공을 격퇴한 피의 전선이었다. 이 때 창녕과 영산은 완전히 초토화되는 큰 전화를 입었으며 1959년 창녕에, 1978년 영산에 전적비가 세워졌다.

1960년 창녕면이 읍으로 승격되었고, 1963년 남지면도 읍으로 승격되어 2읍 12면을 관할하게 되었다. 1973년 부곡면에 유황온천이 개발되고, 1977년 군의 중앙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구마고속도로가 개통되었으며, 1976년

이래 沼澤地域인 창녕읍·유어면·대지면·성산면 등을 포함하는 창녕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이 시행되어 광대한 수해상습지역이 옥토가 됨으로써 창녕군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1998년에 행정조직 개편으로 고곡출장소가 폐지되었고, 현재 139개 법정리에 286개의 행정리로 개편되었다.

【昌寧의 歷史와 關聯된 文獻記錄】拔萃

◦『三國志』魏書 東夷傳
弁辰 24國……不斯國

◦ 昌寧 眞興王拓境碑
……尺干沙七聰智及尺干四方 軍主比□□(自火, 斯伐)…(중략)…軍主沙喙登智……

◦『日本書紀』 卷9 神功皇后 攝政49年 3月條
俱集干 卓淳擊新羅而破之, 因以平定比自㶱, 南加羅, 喙國, 多羅, 安羅, 卓淳, 加羅, 七國

◦『三國史記』卷34 <地理>1
<火王郡條> 火王郡 本比自火郡 一云比斯伐 眞興王十六年置州 名下州 二十六年州廢 景德王改名 今昌寧郡 領縣一 玄驍縣 本推良火縣 一云三良火 景德王改名 今玄豊縣
<密城郡條> 本推火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五 尙藥縣 本西火縣 景德王改名 今靈山縣 密津縣……

◦『三國遺事』卷1 <紀異>1 五伽倻條
五伽倻(按駕洛國記贊云 垂一紫纓 下六圓卵 五歸各邑 一在玆城 則一爲首露王 餘五各爲五伽倻之主 金官不入五數 當矣 而本朝史略 竝數金官 而濫記昌寧 誤)
阿羅(一作耶)伽耶(今咸安) 古寧伽耶(今咸寧) 大伽耶(今高靈) 星山伽耶(今京山一云碧珍) 小伽耶(今固城) 又本朝史略云 太祖天福五年庚子 改五伽耶名 一金官(爲金海府) 二古寧(爲加利縣) 三非火(今昌寧恐高靈之訛) 餘二阿羅·星山(同前 星山或作碧珍伽耶)

◦『三國遺事』卷4 <義解>第5 元曉不羈
……唐僧傳云 本下湘州之人 按麟德二年間 文武王 割上州下州之地 置歃良州 則下州乃今之昌寧郡也 押梁郡 本下州之屬縣 上州則今尙州 亦作湘州也……

◦『高麗史』第57 <地理志>11 地理2
昌寧郡 本新羅比自火郡 一云比斯伐 眞興王十六年置下州 二十六年州廢 景德王改 爲火王郡 太祖二十三年更今名 顯宗九年來屬 明宗二年置監務 別號 昌城 夏城

◦『高麗史』卷57 <地理志>11 地理2

靈山縣 本新羅西火縣 景德王改名尙藥 爲密城郡領縣 高麗更今名 仍屬 忠敬王(元宗)十五年置監務有溫泉 又有伽倻津溟所

◦『世宗實錄地理志』慶尙道 慶州府 靈山縣

本西火縣 景德王改名尙藥 爲密城郡領縣 高麗改今名 屬密城任內 忠敬王十五年甲戌(元世祖至元十一年)始置監務 屬縣一 桂城 羅代稱號 未詳 顯宗戊午 屬密城任內 恭愍王丙午 移屬靈山 恭讓王庚午 還屬密城 本朝 太祖甲戌 復屬于縣 鎭山靈鷲……

◦『新增東國輿地勝覽』卷 27 <昌寧縣>條

昌寧縣 東至密陽府界二十七里 南至靈山縣界十里 西至草溪郡界四十一里 北至玄風縣界二十九里 距京都七百四十里

建置沿革 : 本新羅比自火郡 一云比斯伐 眞興王十六年 置下州 二十一年罷 景德王改火王郡 高麗太祖改今名 顯宗屬密城郡 明宗置監務 本朝例改縣監

郡名 : 比自火 比斯伐 火王 下州 昌山 昌城 夏城 夏山

◦『輿地圖書』慶尙道

大邱鎭管 靈山縣 建置沿革 本新羅西火縣 景德王改尙藥 爲密城郡領縣 高麗改今名 仍屬 元宗置監務 本朝例改縣監郡名 西火 尙藥 鷲山 鷲城

◦『輿地圖書』<慶尙道> 昌寧

大邱鎭管昌寧縣

東至密陽界二十七里 南至靈山界十里 西至草溪界四十一里 北至玄風界三十里 距京 七百五十四里 八日程 北距監營一百里二日程 東距兵營三百里三日程 南距水營二百三十里 二日半程 南距統營二百九十五里三日程

建置沿革 : 本新羅比自火郡 一云比斯伐 眞興王十六年置下州 二十一年罷 景德王改火王郡 高麗太祖改今名 顯宗屬密城郡 明宗置監務 本朝例改縣監 仁宗朝崇禎辛未 以至道逆變革罷合屬于靈山縣 崇德二年丁丑 因御營軍上言 復設

郡名 : 比自火 比斯伐 火王 下州 昌山 昌城 夏城 夏山

◦『慶尙道邑誌』昌寧縣邑誌

建置沿革 : 本新羅比自火郡 一云比斯伐 眞興王十六年置下州 二十一年罷 景德王改火王郡 高麗太祖改今名 顯宗屬密城郡 明宗置監務 本朝例改縣監 仁宗朝崇禎辛未 以至道逆變革罷合屬于靈山縣 崇德二年丁丑因御營軍 上言復設

郡名 : 比自火 比斯伐 火旺 下州 昌山 昌城 夏城 夏山 昌寧

◦『慶尙道地理志』靈山縣條

古之西火縣 新羅時改常藥縣 高麗時改靈山縣 屬密城(今密陽)任內 元宗代至元甲戌 別置監務 本朝因之

◦『大東地志』靈山

建置沿革 : 本新羅西火縣 景德王十六年改尙藥 爲密陽郡領縣 高麗太祖二十三年改縣監 仁祖九年 而昌寧來合 十五年 析之 邑號 鷲山 官員 縣監(兼大邱鎭營) 兵馬節制都尉一員

◦『嶠南誌』卷之七十六 靈山郡

沿革 : 本新羅西火縣 景德王改尙藥 爲密陽郡領縣 高麗改今名仍屬 元宗置監務 李朝改爲縣監 (屬縣)桂城縣 在郡北十五里 高麗顯宗時 屬密城 恭愍王時來屬 恭讓王時還屬密城 李太祖三年 復來屬 高宗建陽元年 改爲郡 大正三年割射村里移屬咸安郡 而合於昌寧郡

郡名 : 西火 尙藥 鷲山 靈山

3. 조사대상지역 개관

금번 조사대상지역은 우포늪의 남쪽 연안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창녕군 유어면 대대리 일원이며 그 면적은 106,200㎡이다.

주지하다시피 낙동강에 인접한 창녕군은 우포늪을 비롯한 번개늪과 장척늪 등 많은 자연늪이 형성되어 있어 수생식물이 발달해 있고 철새들이 찾아오는 생태계의 보고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우포늪은 생태계가 온전하게 보존된 우리나라 최대의 자연 저층늪지로서 창녕군 대합면 주매리와 이방면 안리, 유어면 대대리 및 세진리에 걸쳐 있으며 그 면적은 약 70만평에 달한다. 원시적인 저층늪을 그대로 간직한 자연늪인 우포는 산으로 둘러싸여 개발이란 미명 아래 자행되었던 훼손을 피할 수 있었던 '생태계의 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우포늪, 목포늪 사지포늪 쪽지벌 등 4개의 자연늪으로 이루어진 우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내륙습지로 이방면과 대합면 등에서 낙동강으로 유입되던 소하천의 폭이 좁아지면서 형성되었다. 가로 약 2.5㎞, 세로 약 1.6㎞에 이르며, 유어면・이방면・대합면・대지면에 걸쳐서 옆으로 길게 위치하고 있다. 수리적인 위치는 동경 128°25′, 북위 35°33′이며, 면적은 우포늪이 1,278,285㎡, 목포늪이 530,284㎡이며 사지포늪이 364,731㎡, 쪽지벌은 139,626㎡이다. 이 중 우포늪과 목포늪의 담수지역은 약 7만평에 이르며, 여름철 장마나 홍수로 인해 물을 담고 있는 면적은 약 2,314㎢ 정도로 우포늪에 물이 가득 찬 면적은 서울의 여의도와 그 크기가 비슷하다. 현재는 이방면 토평리와 윗토평리 사이에 제방을 쌓아 우포와 목포로 나뉘어 있고 사지포와 우포사이에도 제방을 쌓아 나뉘어져 있어 외형상으로 우포・목포・사지

포와 같이 3개의 늪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포늪에 유입되는 主川은 土坪川인데, 토평천은 高岩面 甘里에 위치한 烈旺山(66 2.5m)에서 시작된다. 열왕산은 북쪽으로 旺嶺山과 妙峰山이 분수령을 이루고, 남쪽으로 觀龍山(739.7m) 및 火旺山(756.6m)과 분수령을 이룬다. 경상남도의 북단에 위치하며 남북으로 구마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고 동서로는 주요간선도로가 통과하여 교통이 편리하다. 또한 토평천 곳곳의 하천 연변에 대나무 숲이 들어서 있으며, 하천은 蛇行이[11] 심하다. 하상물질은 泥土(진흙)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역면적은 67.1㎢, 유로연장은 12㎞이다. 유역의 형상은 남북에 비하여 동서의 유역폭이 넓은 장방형으로 평균 폭은 5.6㎞에 이른다.

이 지역의 지형 및 지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낙동강의 제1지류인 토평천 유역에 분포하는 지층은 중생대 백악기의 신라층군에 속하는 신라역암층을 기저로 하여 함안층·진동층 및 팔용산 응회암층의 퇴적암과 이를 관입하는 미산 안산암층 및 含角礫質 안산암이 소규모로 분포하며, 이들 암층을 불국사통의 화강암체가 관입한 것으로 언급된 순서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분포하여 서반부는 퇴적암이, 동반부는 화성암이 드러나 있다. 이 중 신라역암층은 유역의 입구인 성산리 부근에 분포하여 역암·사암·사질·세일·실트스톤 및 니회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함안층은 그 상류로 초곡리~대벌리에 걸쳐 넓게 분포하며 회색 및 적색 세일로 구성된다. 진동층은 십이리~대암리~창녕까지 넓게 분포되며 암회색 내지 회색 세일로 조성되며 불국사 화강암과의 접촉부는 화강암의 관입시 접촉변성 작용에 의해 백색 내지 회녹색 쳐트로 변성되어 노출된다.

이 우포늪의 형성시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설이 있다. 첫째는 약 1억 4천만년 전에 형성되었다는 설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이 지역의 퇴적암을 조사한 결과, 이 시기에 해당되는 공룡 발자국화석과 빗방울 무늬화석 및 곤충화석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약 6,000년 전에(B·C 4,000년 경) 형성되었다는 설이다. 이것은 빙하가 녹아내리기 시작하여 지금의 한반도 육지와 해안선을 구분 지었던 시기에 형성되었다는 것으로, 이때 바닷물이 불어나서 강물이 흘러들지 못하고 거꾸로 흐르게 되어(逆流현상) 낙동강 바닥의 높이보다 낮았던 강 주변의 땅으로 강물이 넘쳐흘렀으며, 이 때 낙동강 중류인 경상남북도의 경계에서부터 창녕군 남지 사이의 낙동강변에는 배후습지[12] 성격의 호수가 집단적으로 분포하게 되었고, 빙하기에 침식

11) 하천 등이 뱀이 기어가는 형상이나 모양으로 구불구불하게 흐르는 것을 말한다.

12) 배후습지 또는 후배습지라고도 하는데, 汎濫原이나 三角洲에 발달한 자연제방의 배후에 생긴 습지를 말한다.

곡이 발달하여 낙동강과 토평천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후빙기 해수면에 도달한 토평천은 하류의 운반량이 적어 홍수 때에 逆水현상이 나타났으며, 돌멩이와 모래도 같이 넘쳐서 주변지역에 쌓여 자연적인 제방(둑)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연유로 토평천도 이때 'U'자 모양의 둑 안에 물이 고이면서 자연늪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우포늪은 주민들 사이에서는 '소벌'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지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우포늪 인근에서 주민들이 소를 키우며 풀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였으며, 인근 소목마을의 뒤편에 위치한 산의 명칭이 '牛項山'인데 이 산이 놓인 지세가 소의 형상으로 그 목 부분에 해당하는 곳이라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사지포늪의 경우는 모래가 가장 많이 있어 '모래벌'이라고 불렀으며, 쪽지벌은 한자로 표기되지 않고 옛날 이름 그대로 불리는데, 네 개의 늪 중에서 크기가 가장 작기 때문에 '쪽지벌'이라고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목포늪은 '나무개벌'로, 여름철이 되면 작은 하천을 따라 땔감이 많이 떠내려 와서 나무 땔감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곳이어서 붙여진 명칭이다.

그런데 이러한 우포늪에 대한 옛 문헌기록에 '우포'라는 지명은 나오지 않는다. 단지 朝鮮 成宗朝에 편찬된『東國輿地勝覽』<昌寧縣>條에 '勿瑟川', '梨旨浦', '樓仇澤', '龍壯澤'의 기록이 나오며, 또한 純祖朝에 편찬된『慶尙道邑誌』에도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哲宗朝에 편찬된『大東輿地圖』에는 '물슬천'과 '이지포'가 지도에 나타나 있으나, 누구택은 나타나지 않으며 대신에 '漏浦'라는 지명이 나와 있다. 이를 토대로 살펴 볼 때, 물슬천은 지금의 '토평천'이며 용장택은 현재는 개간되고 없는 대합면에 있었던 '용호'를 지칭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梨旨라는 지명은 토평천 하류부 성산리에 '梨旨' 혹은 '배말리'라는 지명이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현재 이 위치에 소택지가 없다. 그렇지만 여기서 주목 되는 것은『東國輿地勝覽』에 나오는 '누구택'과『大東輿地圖』에 나타나는 '누포'의 위치가 현 우포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다.

그러다가 이후 일제시대에 지명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우포, 목포, 사지포로 명기되고 있다.[13] 그런데 1930년대에 들어 우포늪은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지금의 동쪽에 있는 대대제방을 축조하여 대대들을 개간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우포늪은 ⅓가량 줄어들게 되었다. 해방이 되고 196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가 1973년 해제되었다. 이후 도시화와 산업화, 농경지 확장

13) 1918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1/50,000 실사지도에 지금과 같은 지명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우포늪 주변의 원형을 살펴 볼 수 있다.

등으로 크고 작은 대부분의 늪지들이 농경지로 바뀌게 되어 많은 훼손을 초래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 학자들이 우포늪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1990년대 이후 본격적인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이를 통해 1997년에는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이듬해인 1998년에 국제협약인 <람사협약>에 등록하게 되었으며, 1999년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인근 사유지를 점차적으로 매입하여 우포늪 보호에 힘쓰고 있으며,[14] 창녕군을 비롯한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에서 우포늪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포늪은 육지로 이행하는 생태적 천이의 중간단계로서 각종물질의 전환을 비롯하여 생물상의 종 조성에 있어서도 고도의 다양성을 지니며 지구상에서 가장 생명부양력이 높은 생태계로서 생물학적, 수리학적 그리고 경제학적 가치가 높이 인정되어 늪지의 보호가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우포늪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1998년부터 연차적으로 주변 토지 매입을 추진하면서 보전과 생태적 건전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자연학습장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 강우시 상류로부터 유입되는 많은 쓰레기와 늪지대 사유지 경작으로 인한 오염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곳은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는 곳이 아니라, 항상 사람들의 간섭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포늪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라는 현실적 당면과제를 뿌리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자연과 생태계의 보전이라는 목적과 조화롭게 결합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Ⅲ. 조사내용

1. 고고・역사학적 조사

조사대상지역인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대대리 일원의 우포늪 생태공원 조성부지는 우포늪의 남쪽 호안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우포늪 주차장과 그 북쪽의 경작지가 포함되며, 그 면적은 106,200㎡이다.

조사는 우포늪 생태공원 조성사업 부지 대상지를 중심으로 주변 500m 이내의 범위를 대상으로 도보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현재 조사지역 내의 일부

14) 사유지 매입현황을 보면, 1998~2001년까지 사유지 206필지 577,764㎡를 매입하였으며, 2002년부터 456,000㎡를 추가로 매입할 계획을 하고 있다.
昌寧郡誌編纂委員會,『昌寧郡誌』(上), 昌寧郡誌編纂委員會, 2003

지역은 논과 밭 및 과수원으로 경작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우포늪의 수위가 상승하여 현재 물속에 잠겨 있는 상태이다. 현재 논으로 경작되고 있는 지역과 물에 잠긴 지역은 현실적으로 조사가 어려워 지표조사는 조사지역과 주변지역의 밭으로 경작되고 있는 지역 및 능선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은 유적이 입지하기 좋은 곳으로 예상하였지만 유적의 징후를 찾아내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따라서, 현지 지표조사는 토양의 관찰이 용이한 밭으로 경작되고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지질학적인 조사는 조사지역내에서 암반이 드러나 있는 단애면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조사지역 내에서 선사시대 이후의 고고학적인 유적의 징후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지역의 주변 지역에서 근대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민묘 7기만 확인되었다.

2. 고생물학적 조사[15)]

(1) 조사지역의 지형

노년기에 해당하는 퇴적암으로 된 야산 사이에 남북으로 좁게 발달한 전답지형으로 북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가진다. 북쪽은 우포늪의 南緣과 경계를 이룬다.

(2) 조사지역의 지질

중생대 백악기 전기에 퇴적된 하양층군의 함안층이 창녕군의 서쪽 반을 거의 덮을 정도로 넓게 분포한다. 함안층의 模式地는 咸安이나, 팔공산에 南接한 대구에서 사천까지 길게 연장하여 분포하는데 이 층은 붉은 색의 셰일과 사암을 포함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삼으며 당시 퇴적환경이 하천환경으로 해석되는 근거중의 하나가 된다. 그러나 회색 내지 暗회색 셰일, 이암, 실트스톤, 응회암 등을 포함하기도 한다. 총 두께는 창녕 지역에서 1,500m이다.

조사지역은 대부분 冲積層으로 덮여 있으며 서쪽과 남쪽 일부가 산지로서 露頭가 약간 발견된다. 이곳의 층위는 함안층의 상부에 해당되는데 암질은 회색 내지 암회색 셰일로 구성되며 지층의 走向과 傾斜는 각각 N20°E 와 18°SE이다. 조사지역의 서쪽 경계가 완만한 경사의 산지와 만나는 이유와 지층의 자세와는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인근에서 貫入巖體는 발견되지 않으며 이는 이 일대가 현재 완만한 지형을 이루게 한 이유가 된다. 과거 도폭조사

15) 고생물학적 조사는 진주교육대학교의 서승조교수(교육대학원원장, 경상남도문화재위원)가 조사단과 동행하여 실시하였으며, 보고서의 조사내용 또한 서승조교수가 작성한 것을 보고서에 맞추어 편집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조사지역 가까이까지 想像斷層線이 접근하고 있으나 조사지역내 현장에서 단층의 흔적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3) 조사지역의 화석관련 조사

함안층의 퇴적환경을 하천에 의한 퇴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퇴적 후 계속된 퇴적물의 산화작용으로 인하여 體軀화석의 보존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당시의 기후는 생물이 살기에 적당하였고 물의 공급이 충분한 만큼 생물이 번성하였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痕迹化石의 발견 확률은 대단히 높다.

다음은 조사지역 인근 또는 창녕군 내에서 흔적화석(공룡 발자국화석)이 이미 발견된 예를 든 것이다. (참고, 진동층은 함안층 바로 위의 층으로 붉은색을 갖지 않는다)

【표2】 창녕군 지역의 흔적화석 예

발견 지점 (함안층 내)	화석 종류 / 량	지층명	조사지역에서 직선거리	비고
유어면 세진리 둔터	용각류 공룡 / 발자국화석 3개	함안층 -중부	약 1,000m	우포 늪 南西端
대지면 모산리	용각류 공룡/ 11개 보행열 - 118개 발자국	진동층 -최하부	약 5km	구마고속도로 옆
도천면 도천리	용각류 공룡 / 10개 보행열/ - 약 1,000여개 발자국	진동층 -하부	약 20km	국도 5호선 옆
도천면 죽사리	용각류 공룡발자국 / 1개 보행열 - 20개 발자국	진동층 -하부	약 20km	
부곡면 거문리	용각류, 조각류 및 수각류 보행열 각 1개 - 65개 발자국	진동층 -중부	약 25km	일성콘도 입구 도로변

함안층에서 최근에 흔적화석이 발견된 좋은 예로는 진주시 진성면 가진리 경남과학고등학교 부지내에서 새발자국(학명*Koreanornis hamanensis* 외 2, 500여개) 및 공룡발자국(80여개)이 발견(1998년)되어 천연기념물 제395호 “진주 가진리 새발자국 및 공룡발자국 화석지”로 지정되어 보호·관리되고 있다. 역시 진성면 상촌리 국도 확장공사장에서 각종 공룡발자국화석이 무더기로 발견(2002년)되어 이를 절단하여 고성군 회화면 당항포 자연사 자료관에 전시·보관 중이다.

그리고 함안군 칠원면 용산리의 새발자국화석(*Koreanornis haman ensis*)은 천연기념물 제222호 “함안층의 새발자국 화석”으로 지정(1970)되어 보

호하고 있다. 또한 함안군 칠서면 대치리 칠서지방공단 부지 조성시 공룡발자국화석(70여개)이 발견되어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05호 “함안 대치리 공룡발자국화석” 으로 지정되어(1993) 보호되고 있고, 여항면 외암리 양촌 뒷산 꼭대기에서 공룡발자국화석이 발견되어 그 가치를 인정하고 경상남도 기념물 제68호 “함안 외암리 공룡발자국화석” 으로 지정되어(1983) 보호되고 있다.

(4) 고생물관련 조사의견

조사지역이 우포늪과 인접하여 있으며 인근에서 공룡화석이 이미 발견·보고 된 적이 있으므로 간단한 지표조사에서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초기 토목공사과정에서 정밀한 현장조사를 병행하면 화석의 발견이 예상되며, 발견될 경우에 <습지보호지역>인 우포늪과 더불어 그 가치는 확대될 것이다.

이런 점 등을 감안하여, 본 조사지역의 남서부 지점에서 지층을 절단하고 암석을 제거하는 토목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룡 및 새 발자국 화석이 발견될 가능성이 크므로 공사 시에 전문가의 입회조사가 요구된다.

Ⅳ. 조사단 의견

이상,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대대리 일원의 우포늪 생태공원 조성사업 부지에 대한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문헌적, 고고학적, 고생물학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의 내용을 요약하여 조사단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조사지역 북쪽으로 우포늪이 형성되어 있어 유적이 입지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고고학적인 유물이나 유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적이 확인되지 않는 이유는 여름철 장마나 홍수로 인해 우포늪의 수위가 만수가 되면 조사지역의 일부가 물에 잠기게 되어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한 지역이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고생물학적인 조사에서는 창녕지역과 우포늪 인근 지역에서 공룡화석이 이미 발견·보고된 적이 있으므로 간단한 지표조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초기 토목공사과정에서 정밀한 현장조사를 병행하면 화석의 발견이 예상되며, 발견될 경우에 <습지보호지역>인 우포늪과 더불어 그 가치는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본 조사지역은 시굴조사나 발굴조사 등 고고학적인 조사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고생물학적으로는 흔적화석이 발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 조사지역에서 지층을 절단하고 암석을 제

거하는 토목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룡 및 새 발자국 화석이 발견될 가능성이 크므로 공사시에는 화석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가 요구된다.

이번 지표조사에서는 문화유적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공사를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공사도중 매장문화재의 흔적이 확인되면 관련 행정기관에 보고하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절차를 통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三國史記』(中宗 7년;1512, 活字本)
『三國遺事』(고간본・정덕본)
『高麗史』(復刻本)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成宗 23년;1492, 癸丑字 活字本)
『輿地圖書』
『慶尙道地理志』
『慶尙道邑誌』<昌寧縣>
『大東地志』(1932년, 崔南善 所藏 필사본)
『嶠南誌』(1937년, 大邱慶文堂 活字本)
『三國志』<魏書> 東夷傳
『日本書紀』

경남대학교 경남지역문제연구원 편,『경상남도 연구』, 경남대학교, 1997.
경남문화재연구원,『昌寧松峴洞古墳群 試掘調査結果略報告書』, 2002. 6
김재원・윤무병,『한국지석묘연구』, 국립박물관, 1967.
동아대학교박물관・창녕군,『文化遺蹟分布地圖(墳墓遺蹟)』, 동아대학교박물관, 1998.
문화재관리국,『重要發見埋藏文化財圖錄』, 1989.
영남대학교박물관,『昌寧 桂城古墳群 發掘調査報告』, 1991.
이은창 외,『창녕 계성리 고분군』, 영남대학교박물관, 1991.
정의도 외,『昌寧松峴洞古墳群 精密地表調査報告書』, 學術調査硏究叢書 第6輯,
경남문화재연구원, 2000.
창녕군,『昌寧郡 文化財 整備 5個年 計劃』, 1994.
창녕군,『살아 숨쉬는 자연의 신비 우포늪』, 창녕군・창녕환경운동연합, 2002.
창녕군・경남개발연구원,『우포・목포 생태계 보전 방향』, 창녕군, 1997.
昌寧郡誌編纂委員會,『昌寧郡誌』, 2003.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圖　版

도판 1. 조사지역 원경(북→남)

도판 2. 조사지역 전경(북→남)

도판 3. 조사지역 부분전경(동쪽지역, 서→동)

도판 4. 조사지역 부분전경(서쪽지역, 동→서)

도판 5. 조사지역 부분전경(남쪽지역, 북→남)

도판 6. 조사지역 부분전경(북쪽지역, 남→북)

도판 7. 조사지역 부분전경(주차장지역, 남→북)

도판 8. 조사지역 부분전경(주차장지역, 서→동)

도판 9. 昌寧成氏 成鶴慶의 墓(서→동)

도판 10. 昌寧曺氏 夫婦墓(남→북)

도판 11. 근대민묘 1 전경(동→서)

도판 12. 근대민묘 2 전경(남→북)

도판 13. 근대민묘 3 전경(동→서)

도판 14. 근대민묘 4 전경(동→서)

도판 15. 고생물 관련 조사지역 1 (회색 셰일로 된 이 부분은 흔적화석 발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도판 16. 고생물 관련 조사지역 2

(財)東亞文化硏究院 地表調査報告 第10輯

창녕 우포늪 생태공원 조성사업부지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인 쇄 일 / 2004년 8월 12일
발 행 일 / 2004년 8월 13일

編輯·發行 / (財)東亞文化硏究院

641-811 경남 창원시 도계동 412-7
봉영 B/D 201호
TEL : (055) 265-9150~3
FAX : (055) 265-9154
E-mail : feaci03@hanmail.net

인 쇄 처 / 부 광 사
641-824 경남 창원시 사림동 11-1
TEL : (055) 285-1834